

2020년도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 필기시험 문제지(단기실습)

1.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에는 이쁘고 좋기만 한 고운 정과 귀찮지만 허물없는 미운 정이 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언제나 고운 정으로 출발하지만 미운 정까지 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운 정보다는 미운 정이 훨씬 너그러운 감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확실한 사랑의 이유가 있는 고운 정은 그 이유가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지만 서로 부대끼는 사이에 조건 없이 생기는 미운 정은 그보다도 훨씬 질긴 감정이다. 미운정이 더해져 고운정과 함께 감정의 양면을 모두 갖춰야만 완전해 지는 게 사랑이다.”

2.

“ 그 때 1969년 겨울 나는 조그만 앓은뱅이 책상 앞에서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라는 제목의 목록을 지우고 있었다. 동정심, 선과 악, 불변, 오직 하나뿐이라는 말, 약속... 마침내 목록을 다 지운 나는 내 가운데 손가락 마디에 연필 쥔 자국이 깊게 파인 것을 한참 동안 내려다 보았다. 그 이후 지금까지 나는 인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도 나는 뭔가를 쓰다가 이따금 연필을 내려놓고 가운데 손가락 마디의 용이를 한참 내려다보곤 한다. 나는 삶을 너무 빨리 완성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목록을 다 지워버린 그때, 열 두 살 이후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은희경, <새의 선물> 중